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May 12, 2022 Vol. 813

“주여 회개하오니, 미국을 부흥케 하옵소서”

남가주 교계
‘제71회 국가 기도의 날’
연합기도회 개최

“미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주의 길을 떠나 악한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 하오니 미국을 용서하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옵소서. 미국에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미주 한인 크리스천들이 제2의 청교도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가주 한인들이 미국의 회개와 영적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제71회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 모인 한인들은 국가 지도자들의 성경적 리더십 회복과 미국의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다.



‘제71회 국가 기도의 날’ 남가주 연합기도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참석자들 ©기독일보

기도회 참석자들은 미국의 회개와 부흥을 시작으로 미국의 대통령과 정치인, 법조인들, 캘리포니아주의 행정 관리, 군지도자와 공무원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기를 기도했다. 또 미국의 청교도 신앙 회복과 부흥,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반성경

적 가치관에 물든 미국의 당면한 현안 문제들, 그리고 새로 취임하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북한의 인권 회복 및 북을 통일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다.

김시온 목사(옹기장이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의 기도

에 이어 진유철 목사가 “역전승을 이루는 기도”(행12:11-12)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진유철 목사는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물질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를 향해 가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풍토가 교회와 기독교 신앙

을 압박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 목사는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다양각색이지만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역전승을 이루신다”며 “우리는 작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역사 하심을 기억하면서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도전했다.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한 영 김미연방학원의원은 “하나님만이 혼란스러운 이 땅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미국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며 “기독교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바로 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미국의 교회가 다시 세계적인 부흥을 이끌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자”고 독려했다. 김동욱 기자

美 대법 판결로 ‘낙태권 제한’ 되면 최소 20개 주에서 낙태 금지

미국에서 지난 1973년 낙태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대법관 다수의 의견으로 뒤집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초안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는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이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입수해 최근 보도했다. 이후 낙태 찬반론자들이 연방대법원 앞에서 저마다의 주장을 펼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임신 15주 이후 낙태

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법안을 심리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총 9명이 대법관들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왔다. 이 판결에 따라 거의 반 세기 동안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나 출산 3개월 전에만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를 뒤집는 내용의 연방대

법원 초안에 대해 현지 친생명단체인 국가생명권위원회(National Right to Life Committee)는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접적인 논평을 유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보도했다.

또 이 매체에 따르면 ‘텍사스 생명의 권리’(Texas Right to Life)는 초안 유출로 인해 낙태권 제한에 찬성하는 대법관들이 자칫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연방대법원의 공식적 판결이 있을 때까지



연방대법원. ©Roman Boed/flickr

친생명 지지자들은 대법관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는 6월이나 7월 초쯤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낙태를 옹호하는 미국 계획가족연맹(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은 유출된 연방대법원 초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만약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최소 20개 주에서 대부분의 낙태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진영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중고비자 및 이민업무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지!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양한 빛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편을 책임하겠습니다.

뱅크러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 (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GMU 미주 한인신학교 최초 '교육학 철학 박사과정' 개설

미국 남가주에 소재한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이하 GMU)가 미주 한인신학교 최초로 교육학 철학 박사과정을 개설한다.

GMU는 지난 4월 25일 미국 기독교 학교 학위 인증기관인 트랙스(TRACS, 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로부터 교육학 철학박사(PhD in Educational Studies) 학위 개설인가를 받고 오는 2022년 가을학기부터 교육학 철학박사 강의를 시작한다.

선교지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미국에서 공인하는 교육학 철학박사 학위를 통해 학교 설립과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규남 총장은 "이번 교육학 철학박사 학위과정 개설은 미주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박사원은 지난 9일, 남가주 기독교계 언론사를 초청해 트랙스 인가 취득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병규 박사원장, 안승주 교수, 최규남 총장, 김현완 학장, 제임스 구 행정처장 ©기독교일보

한인 신학교 중 처음으로, 이를 통해 전세계 한인 선교사들의 학문적 개발을 지원하고자 한

다"며 "GMU는 내실 있는 교육으로 한국 선교 발전의 조력자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병규 박사원장은 "선교지 현지 지도자들이 성장했다. 그에 맞춰 선교사들도 공부하지 않

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며 "교육학 철학박사 학위과정을 통해 교육 전문가가 부족한 선교 현장에 필요한 교육 디렉터 양산에 기여하고, 공산 국가나 무슬림권 선교지지의 학교 운영에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업은 한국어로 제공되며 온라인 50%, 나머지는 50%는 선교지역에서 직접 교수들과 만나 진행된다.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총 52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학비는 학점당 580달러로 책정됐다. 그러나 선교사와 목회자에게는 30%의 학비면제 혜택이 있는데, 특별히 시작하는 이번학기에는 20%의 추가 학비면제 혜택이 있다.

입학 문의는 이메일 doctoral@gm.edu 또는 전화 714)365-1123로 할 수 있다.

김현진 기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캘리포니아 한인 정치인 정계 진출 기도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5월 정기 조찬기도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5월 정기 조찬기도회 개최 기독교 유적지 돌아보는 봄 기차여행도 준비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웅)는 지난 7일, 에반젤리아대학교 채플실에서 5월 정기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기도회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OC지역에 새롭게 출마한 제시카 차 변호사(OC판사 후보), 유수연 ABC통합교육위 위원장(CA 67지구 하원의원 후보), 박영선 시장(OC슈퍼바이저 후보)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한인 정치인들을 위한 특별 기도로 진행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 정부와 미국의 바이든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오렌지카운티 지역 사회와 교회,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기도, 연합회의 하반기 사역을 위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했다.

연합회 이사 겸재선 장로는 합심기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빨리 종식되고, 교회와 목회자가 회복되며, 연합회가 하반기 사역을 통해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도했다.

특히 미주 이민사회에서 한인들의 정치적 역량과 소수민족의 인권을 위해 한인 1.5세 2세들의 정계진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모두가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웅 회장의 사회로 시작한 기도회는 윤강혁 부회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한기원 목사(에반젤리아대학교 학생처장)가 "얼마나 해야 합니까?"(마 23:6-13)

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한기원 목사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 사건을 보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다. 하나는 "너무했다"는 시각이고 하나는 "충분했다"는 시각"이라며 "교회 내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헌신과 봉사에 앞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목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저주를 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께 감사로 헌신하는 모두가 되자"고 권면했다.

연합회는 연합회 어른들과 임원들이 함께하는 2022 봄 기차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봄 기차여행은 14일(토) 플러튼 기차역을 출발해 샌 후안 카피스트라노 카페 거리와 캘리포니아 초기 기독교 유적지인 미션, 샌클라멘티 피어를 둘러보는 코스이다.

신동직 총무는 "따뜻한 봄을 맞아 그동안 코로나로 외부활동에 제한을 받았던 것들을 털어내고 기차여행을 통해 심기일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우경 이사장은 "이번 기차여행은 캘리포니아 초기 기독교 유적지를 둘러보는 역사적인 탐방과 함께 바닷길을 따라 기차로 여행하는 낭만이 있는 여행이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샌 후안 카피스트라노에서 오션사이드로 이어지는 메트로 기차여행은 바다를 끼고 달리는 기차길로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기차여행"이라고 한껏 분위기를 띄웠다.

연합회는 OC 인근지역의 평신도들이 보다 많이 참여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널리 알리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매월 첫 토요일 오전 8시에 애너하임에 위치한 에반젤리아대학교 2층 채플실에서 조찬기도회를 갖는다.

김동욱 기자

초 대 합 니 다

목회자 세미나

한 페이지로 꿰뚫는 성경의 예배사

이 정현 목사님을 통해 '한 페이지로 꿰뚫는 성경의 예배사'라는 제목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목회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목회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2년 5월 18일(수) 오전 11시

장소: 미주 양곡교회(지 용덕 목사 시무)
51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연락처: (213)505-1947, (213)500-7803

강사: 이 정 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학 렳
안양대학교 졸업
합동신학대학원 졸업
인천대 교육대학원 졸업
프레트리아대학교에서 박사학위(Ph. D)취득

약 렳
한남노회장
총회신학위원장
대신총고시부장
한국 소망교회 담임

“4/14 윈도우 선교운동, 다음세대 일으키는데 가장 효과적”

남가주 목회자들을 비롯해 미주 전 지역에서 목회자들과 사역자 280여 명이 참석한 4/14 윈도우 운동 컨퍼런스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남가주 에너하임 메리엇 스위트에서 개최됐다.

컨퍼런스는 주제강의와 주제 토론 사례발표 등을 통해 전세계로 퍼져가는 '4/14 윈도우 선교 운동'에 대한 학술적 이론과 선교현장에서의 적용이 소개됐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차세대 복음화와 선교 동력화'에 대한 비전을 나누며, 복음의 전파력이 그 어떤 연령층보다도 뛰어난 4 살부터 14 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사역이 시급함을 공감했다.

'4/14 윈도우 컨퍼런스'는 '10/40 윈도우'를 처음 주창한 루이스 부시 목사가 2009년부터

김남수 목사와 함께 도입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으로, 기존 '10/40 윈도우'의 지리적 개념에서 벗어나 '4세부터 14세'라는 연령적 개념에 초점을 맞춰 선교해 나가는 운동이다.

'4/14 윈도우' 운동의 핵심은 어린 아이들을 선교의 주변이 아닌 중심으로 자원화 하고, 접근(reach), 구원(rescue), 훈련(root), 파송(release)을 통해 선교의 주체(agent) 세우는데 있다.

4/14 윈도우 운동의 5대 중점 사역은 학교설립 운동, 스포츠 선교, 문화 선교, 교육 선교를 통해 아이들이 세속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전에 복음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심고 문화 사역 등으로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해 수많은 어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 달하고 있다.



에너하임 메리엇 스위트에서 개최된 4/14 윈도우 운동 컨퍼런스

또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교회 밖 아이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로 초청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컨퍼런스 강사로 나선 김남수 목사는 "다음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목회자부터 목양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며 "말로만 위기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선교의 방법론은 변화되어야 한다"며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4/14 윈도우 운동'을 통해 모든 교회가 복음과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전했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심상은 목사는 "그동안 미주한인이 민교회가 어린아이들을 등한시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중, 장년층 성도들의 선교 동력을 일으켜, 어린이 한 명부터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는 운동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기쁜우리교회 5기 장학생 선발...6월 11일 제출마감

남가주 거주 및 남가주 소재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유학생 지원 가능



기쁜우리교회 김경진 목사와 2021 제4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이 장학금 수여식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장학위원회는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2도 기쁜우리교회 제5기 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본 주소지 혹은 학교 소재지가 남가주인 정규 4년제 대학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남가주 내 2년제 대학 과정에 있는

외국 또는 타주 출신 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장학금 신청은 △일반 장학생 △신학교 장학생 △선교사 및 목사 자녀 장학생 등 세 부분으로 나뉘며, 신청지는 한 카테고리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재정적 필요성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요약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유학생이어도 가능하며 I-20 관

련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학생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으로 GPA가 2.7 이상인 학생으로 공식 성적표와 함께 재학 중인 대학 교수나 출석 중인 교회 목사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선교장학생은 신학대학 재학생이 지원할 수 있고 제출서류는 같다. 선교사 및 목사 자녀 장학생은 부모가 풀타임 선교사나 목회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서는 기쁜우리교회 웹사이트 www.joyfulccc.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1일(주일)부터 6월 11일(토)까지다. 신청서는 이메일 Email: scholarship2022@joyfulccc.org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선발된 장학생 명단은 8월 1일 발표될 예정이며, 장학금 수여식은 8월 21일 기쁜우리교회 예배시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우크라이나 난민돕기운동본부 1차 구제비 3만 1천 달러 지원

남가주 교계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조직했던 우크라이나 난민돕기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한기홍 목사,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는 4월 30일까지 3만 1천 92.54달러를 모금하고 1차 구제비를 지출했다.

우크라이나 난민돕기운동본부는 우크라이나 문화센터(이사장 Laryssa Leifel)에 1만 달러, 우크라이나 비전센터(대표 임광택 선교사)에게 5천 달러를 지원했다. 또한 세계성시화운동 난민돕기본부(대표 김상복 목사)에 5천 달러, 월드쉐어USA(대표 강태광 목사)에 5천 달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모금을 위해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에서 1만 1천 343달러를 후원했으며, 성시화 운동본부가 4천 달러, 은

해한인교회가 3천410달러, 월드쉐어USA가 2천 달러, OC 장로협의회가 1천 500달러, 드림교회 1천 달러, OC 전도연합회 1천 달러, 나성순복음교회 1천 달러, KACC 1천 달러, P.N.S(사람과 사회) 1천 달러, 자마 5백 달러, CMF 가정사역원 5백 달러, 임마누엘 한인장로교회 500달러, 에제르 사모 기도회 등이 500달러를 기탁했다.

송정명 목사는 "전쟁으로 고통 받는 난민들을 위해 모금 운동에 동참해 준 남가주 한인교회 성도들과 한인 단체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전 세계인들의 기도와 원조, 사랑을 받으며 일어난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과,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제코디대: 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공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 775-7477 gpm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헌장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2022년 여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모집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로스퍼디 교수, Ph.D.
(영국스털링대학) 교회사

멜빈릭스 교수, Ph.D.
(폴리신학교) 조직신학

프리실리아도요 교수, D.Miss
(폴리신학교) 타문화사역

데이빗 맥킨리 교수, D.Min
(트리니티신학교) 리더십

김판호 교수, Dr. Theol.
(독일 본대학교) 조직신학

**온라인 수업 제공
입학생 전원 장학 혜택**

모집 학위과정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장학금
여름학기 전 입학자 25%, 목회자 30%, 선교사 40% 장학금 혜택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 입학서류 양식은 한국어 프로그램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방법 서류심사

원서접수

여름학기 접수기간	2022년 5월2일(월) - 5월 20일(금)
합격자 발표	2022년 6월 2일(목)

여름학기 일정(5주)
2022년 7월 11일(월) - 8월 12일(금)

입학문의 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626) 653 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명예이사장 이영훈, Ph.D.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ITS신학대학원은 예수님을 모른채 방황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전 미국, 나아가 세계를 복음화 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총장 이승현 (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 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우수한 연방인가 기관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 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들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626.653.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52

“비전스쿨을 수료하고 열방을 향하여”

살아계신 선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필자가 섬기는 InterCP International에서 열었던 2022년 미주 봄학기 비전 스쿨에서 약 1,000명의 수료자가 배출되었다. 미주 전체 60개 지부에서 35개의 한국어권과 25개의 EM을 포함한 다민족 비전 스쿨이었다. 이젠 다민족 비전 스쿨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졌다. 약 700명 정도다.

또한 비전 스쿨의 열매는 단기선교이다. 6월부터 3차로 진행될 단기선교 대상국이 약 30개가 넘게 열릴 예정이다. 각 선교지의 장기 선교사들도 미주에서만 약 500여 명의 단기팀들이 신청하고 있어서 단기선교 팀을 맞아 훈련시키고 사역할 준비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다.

필자는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향한 선교 축제 같은 마음이 든다. 물론 미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고국 한국에선 미주보다 감절이 많은 수료자가 나왔고 단기선교도 감절로 많다.

그뿐 아니라, 온 열방에서도 이슬람권의 민족들이 각 나라 종족마다 60여 곳에서 비전 스쿨이 열렸다. 남미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동남아에서도 유럽에서도 비전 스쿨을 통해 선교 비전을 얻은 영혼들이 열방을 향한 큰 기지개를 쳐고 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있음을 선포한다.

세계 각국의 종교 지도자들은 평화를 위한 세계 종교통합을 외치면서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의 열방 선교를 비난하고 제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참 진리요 복음을 세계 종교통합이라는 명목과 바



이상훈 목사 주미전선교회 대표

꿀 수 없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다. 오직 세계 평화는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땅에 복음을 들고 가서 과감히 증거한다.

놀라운 일은 우리의 선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혼들이 날로 늘고 있음이다. 그렇게 선교지는 하나님의 군대로 인해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

코로나 2년의 기간 동안 미주에서는 약 1만 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졌다. 고국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살아남은 교회들도 온전한 대면 예배를 회피하며 영적으로 낙담한 모습을 비추었다. 교회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많은 목회자가 자성하는 모습도 유튜브를 통해 보인다.

그러나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었다. 오히려 무슬림권 안에 있는 현지인 교회들의 예배는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번 여름에도 그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비전 스쿨을 수료하고 하나님의 선교 군사가 되겠다고 결단한 주님의 사람들이 열방을 밟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세상에 세우기 위해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갈 저 믿음의 군사들을 향하여 후방 교회들은 응원의 박수와 함성을 보내야 할 것이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 생애 ⑩ “예수님의 다문화 사역 모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삶의 전(全)영역에 예수님의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기독교 신앙 문화를 덧입히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문화적 변화가 없는 개종이나 선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선교를 초문화적(Cross-cultural) 접근(Approach) 혹은 이문화적(Inter-cultural) 접근(Approach)이라 표현하면서 선교를 기독교 문화의 전수라는 관점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 선교는 문화적 변혁입니다.

그러나 초문화적 접근이나 이문화적 접근은 문화적 주도권을 가진 선교사의 우월적 지위가 전제됩니다. 선교사나 선교팀의 초문화적 혹은 이문화적 접근이 없이 선교가 이뤄지는 다문화적(Multi-cultural)선교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다문화적 선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문화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는 선교 시대입니다.

다문화 사역 현장은 구약에서 이미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다문화 사역자였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히브리 문화를 가지고 타 문화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일했던 다문화 사역자였습니다. 모세도 출애굽 과정에서 유대인과 중다한 잡족(雜族)을 40년간이나 인도했던 다문화 사역자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바울과 예수님이 다문화 사역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생애 자체가 다문화적 삶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의 축하를 받습니다. 애굽으로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피난을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에도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다문화적 환경에서 사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문화적 사역의 꽃은 갈릴리 바다 주변 특히 가버나움 지역 사역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고대 해양 고속도로(Via Maris)와 연결되었습니다. 특히 내륙의 도로망과 해양 고속도로(Via Maris)가 만나는 가버나움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무역이 이뤄진 국제 도시였습니다. 무역상들의 빈번한 왕래가 있었던 가버나움은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가버나움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 그런데 그곳에 로마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행정기관인 세무서가 위치하였습니다. 나아가 당시 갈릴리 바다에는 어업이 성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수산물과 농산물을 가버나움을 찾은 무역상에서 판매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버나움은 번창하는 국제 무역도시였습니다. 다문화 도시에서 예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셨습니다(눅 7:1-10). 그 백부장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회당은 로마의 백부장이 지은 회당이었던 가능성이 높습니다(눅 7:5).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은 곳이 세관입니다. 가버나움에 로마의 세무서 지청이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성경은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 동네(His Own town)’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나셨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준으로 한다면 가버나움에 가장 오래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다양한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과 개인의 집에서 가르치셨습니다(막 1:21; 2:1).

아울러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백부장의 종(눅 7:1-10)을 고치셨고, 네 명의 친구가 데려와 지붕을 뜯고 내린 중풍병자(막 2:1-12)를 고치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막 8:14-15; 막 1:29-31). 왕의 신하의 아들의 질병(요 4:46-54)을 치유하셨습니다.

변산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돌씩 짚을 지어 전도를 보내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에서 전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문화 사회에서 사역하시며 다문화 사역 현장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의 방문을 만류합니다. 이것은 당시 일반인들이 가졌던 문화적 종교적 장벽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와 장벽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평판에 얽매이지 않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권세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예수님의 다문화 사역 리더십은 성육신적 겸손과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교차하는 역동적 리더십입니다. 다문화 사역의 관건은 환경이 아닌 사역자의 열린 마음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존 코 교수, 에디 변 교수.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김한요 목사, 강준민 목사, 권혁빈 목사, 권준 목사, 이규현 목사.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목회경력 3년 이상), 수업기간 (1-3년차 일정),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 신임총회장 이대우 목사 선출



좌부터 장로부총회장 한상훈 장로, 목사 부총회장 허정기 목사, 총회장 이대우 목사, 총무 김시은 목사

부총회장 허정기 목사, 신임 교단총무 김시은 목사 선출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필라한빛성결교회에서 개최된 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에서 이대우(필라한빛성결교회)가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미주성결교회는 한국 성결교단과 긴밀하게 교류하고, 교

단 산하 개척교회 및 미자립교회, 해외선교사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대우 총회장은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세속화의 거센 도전 가운데, 성결 교단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확립하고,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힘쓰겠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따라 총회 산하 교회들과 총회 발전 위해 한 해 동안 임원과 힘써 헌신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부총회장에는 허정기 목사(몬트리올 호산나교회), 3년 동안 교단의 살림을 담당한 신임 교단총무에는 김시은 목사(LA 옹기장이교회)가 선출

됐다.

부총회장 허정기 목사는 “총회 산하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회적 전략을 제시하고, 차세대와 영어 목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총회가 되고자 한다”며 “미주성결교회가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와 선교의 허브가 되겠다”고 밝혔다.

총무 김시은 목사는 “미주성결교회 목회자들의 평균 연령이 매우 젊어지고 있다”며 “교단 2세 목회자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3040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 영어권 사역자들이 역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목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시은 목사는 또 “은퇴 목회자의 노후 복지를 위해 한국 총회 연금 가입을 돕고, 미주 특성에 맞는 연금 제도를 연구 개발하겠다”며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연결해 재정 후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서사라 목사 대신총회 서울동노회 목사부노회장 추대



LA주님의사랑교회 담임,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 원장 서사라 목사

주님의사랑교회(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 대표) 담임인 서사라목사가 지난 2일 송천교회(담임 최종환 목사)에서 열린 대 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서울동노회 제 121회기 1차 임시노회에서 만장일치로 목사부노회장에 추대됐다.

서사라 목사는 주님의사랑교회 담임목사, 강서시찰 서기, 해외선교부 서기를 역임하고 주님사랑세계선교회대표로 인도, 벨리지, 케냐 등지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서 목사는 “부노회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울동노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회와 지교회를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욱 기자

캘리포니아 한인공화당 '제1회 국가를 위한 기도회' 개최

오는 15일(주일) 오후 6시, 풀러턴 트루러브루터란처

인들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했다. 오는 6월 7일은 공직자 예비선거일로 이날 투표를 위해서는 5월 23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캘리포니아 한인공화당은 오는 15일(주일) 오후 6시, 풀러턴에 위치한 트루 러브 루터란 처치(True Love Lutheran Church 152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에서 캘리포니아 공화당 후보들을 초청해 '제1회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한다.

기도회를 준비하는 이유호 목사는 “성경적 가치를 기반으로 세워진 미국이 인본주의와 세속화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해 달라”고 초대 의 말을 전했다.

캘리포니아 한인공화당은 미국을 바로 세우는 이번 기도회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미주 한

참여 문의는 전화 323)820-8520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캘리포니아 공화당 후보 초청 국가를 위한 기도회

National Prayer Meeting for the California Republican Candidates



Michelle Martinez District 41 Republican Chair, Sharon Washington Salt & Light Leader, Soo Yoo District 67 Candidate California House, Rev. Charlyn Park Dr. KACRP Honorary Chairwoman, Jenny Rae Candidate Governor California, Eric Ching District 36 Candidate US Congress, Rev. Jacob Lee KACRP Chairman, Rev. Hun Y. Cho Great Light Methodist Church

오는 6월 7일은 공직자 예비선거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선 5월 23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캘리포니아 한인공화당에서는 캘리포니아 한인공화당 후보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제1회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며 이에 뜻을 함께하는 동포여러분을 초청합니다.

June 7th is the day for our National Primary Election. It is so important you must register to vote in advance by May 23, 2022. We cordially invite you to our 1st 'California National Prayer Meeting for the Republican Candidates' on May 15, 2022, at 6:00 PM at the Fullerton 'True Love Lutheran Church' in Fullerton, California.

Date: May 15(Sunday), 2022, 6:00 PM Location: 'True Love Lutheran Church' in Fullerton R.S.V.P. by May 10, Tel: (323)820-8520 Dr.박성녀목사

국가를 위한 기도회 위원: 강병태목사, 강만석목사, 조현영목사, 이우호목사, 제임스한목사, 박성녀목사, 하세화권사, 사라박사모, 제이김사모, 이은숙사모



캘리포니아 미주한인공화당

California Korean American Republican Party National Prayer Committee www.miamikoreannews.com

후원: 마이아미재외동포신문, 코랄리치한인교회, 캘리포니아성령애국집회,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플러턴, 세리토스, 부에나팍, 싸이프러스, 라팔마, 엘바인 OC/LA전지역

알짜배기 매물만 소개합니다

믿음이 성공입니다! 뉴스타 34년을 믿으십시오. 주택/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 / 리스팅 전문

뉴스타부동산 NEWSTAR Realty & Inv. www.newstarrealty.com

케를리 DRE #196895 뉴스타부동산 명예부사장 Carole Lee Realtor Cell 714.345.4989



(한)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한)코네티버스 USA 이사장 (전)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재미 발명가협회 고문 변호사 (전)중부 상권회의소 이사장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사"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력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립시

뱅크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a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서울시교회 32주년 교회창립주일 예배 드려

자넷 현 작가·조인형 교수 초청 등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로 예배

올해 창립 32주년을 맞은 서울시교회(조희서 담임목사)가 5월 1일 교회창립주일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풍성한 은혜와 교제, 전도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2부 예배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적 그림을 그리는 프러페틱 아트(prophetic art) 작가 자넷 현(Janet Hyun) 집사가 참여해, 현장에서 받은 은혜와 영감을 그 자리에서 그림으로 완성했다. 3부 예배는 우리나라 오르간 음악과 교회음악계의 대표적 지도자인 조인형 교수(한국오르가니스트협회 상임이사)를 초청해 오르간 연주회로 들려졌다.

최근 방역지침 완화로 이날 서울시교회에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성가대가 강단에 섰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식사 교제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점심 도시락을 들고 교회 식당이나 송곡고등학교 운동장, 인근 숲 등에서 식사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단은 전도팀, 교구, 목장 등이 준비한 1,000여 개의 꽃 화분이 전시돼 화사한 꽃밭으로 변신했다. 예배 후 꽃 화분의 일부는 지난 4월 매주 토요일 집중 전도를 통해 이날 처음 교회에 온 30여 가정과 원하는 성도들에게 전달됐고, 대부분은 전도팀과 교구가 인근 양원지구 신축 아파트를 찾아가 집집이 현관 손잡이에 꽃 화분을 걸어주면서 입주민들에게 선물로 돌렸다.

2부 예배에서 엘리에셀 성가대의 '기뻐하라 경배하세' 합창 이후 조희서 목사는 '한나와 다윗의 노래'(삼하 22:1~7)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조 목사는 "비닐하우스에서 두 번, 지하, 2층, 1층에 교회에 들어갔다가 여섯 번째에 이 교회를 건축했다"며 "비닐하우스 교회가 4월 마지막 주 철거를 당하면서 5월 첫째 주 서울 왕십리(성동구 홍익동)로 쫓겨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5월 첫째 주를 창립일로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자넷 현 집사가 예배 시간 완성한 작품 '천국의 계단' 앞에서 조희서 목사가 설교를 전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조 목사는 "(왕십리로 쫓겨온) 당시 길에서 만난 한 여인이 3천 만 원을 주어서 지하실을 얻었고, 하나님은 2년 만에 지상으로 나오게 해주셨다. 그리고 12년 만에 제가 꿈꾸고 여러분이 기도해주셨던 전철역 앞, 버스 종점 앞, 고속도로와 가까운 입구의 좋은 땅(송곡고등학교)에 와서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담대히 살 수 있었고, 여

러분같이 훌륭한 헌신과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교회를 세웠다. (코로나 시대에는) 또한 최초로 승차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며 성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조 목사는 이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에서 보이는 9가지 공통점을 소개하고 "다윗처럼 위기의 때 하나님께 돌아서서 회개 기도를 하고, 우리의 자랑을 모두 내던지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놀

라게 역사하신다"며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큰일을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부 예배 직전부터 강단 위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자넷 현 집사는 이날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 작품 '천국의 계단'을 완성했다.

설교를 마친 후에는 관악 5중주의 흥겨운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고 성도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지희 기자

제4차 로잔대회, 2024년 한국에서 열린다

국제로잔, 공식 발표... 아시아로잔과 공동 개최

반세기 가까이 세계 복음주의 선교 운동을 선도해 온 로잔운동의 제4차 로잔대회가 오는 2024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국제로잔 총재이자 CEO인 마이클 오(Michael young suk Oh) 목사는 4일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 국제로잔 본부와 아시아 로잔 지도자 모임의 폐회 예배를 앞두고 열린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 아시아 공동 개최 기자간담회'에서 이뤄졌다.

마이클 오 총재는 "제4차 로잔대회(2024 서울대회)가 2024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2024년은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 아시아 공동 개최 기자간담회가 4일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로잔 이재훈 의장, 국제로잔 마이클 오 총재, 국제로잔 패트릭 핑 이사회 멤버 ©이지희 기자

1974년 스위스 로잔 대회, 1989년 필리핀 마닐라 대회,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 대회에 이어 로잔운동이 50주년이 되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24년이 특별한 기념일 정도가 아니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진지한 재헌신에 대해 교회

를 도전하고 결집하도록 부름 받은 전략적인 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제4차 로잔대회는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약 3천~5천 명의 글로벌 선교 사역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한국,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 로잔

이 협력하여 공동 개최하며, 조직위원장은 국제로잔 마이클 오 총재와 한국로잔 이재훈 의장(온누리교회 담임목사)이 공동으로 맡는다. 조직위원회 측은 이번 대회가 특별히 세계 선교의 가속화를 위해 '함께 듣고, 모이고, 행동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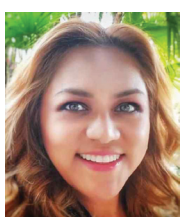
마이클 오 총재는 2024 서울대회를 개최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첫째는 겸손한 경청을 통해 세계의 가장 큰 필요와 기회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패한 길을 회개하기 위해서이며, 둘째는 세계 선교를 가속하는 로잔운동의 사명을 위해 함께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셋째는 복음의 능력과 소망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세상과 나누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24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을 동원하는 두 가지 이유로 "첫째는 시대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극심해질 때, 이것을 다루는 시기가 이때인 것 같을 때다. 둘째는 내부적으로 기독교를 위협하는 요소가 생길 때로, 이 시대 유일한 신학적 질문들을 다루게 되고 세계 교회 가운데 관계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을 갖는다"고 언급했다.

이지희 기자

캘리포니아 공화당 후보 초청 국가를 위한 기도회

National Prayer Meeting for the California Republican Candidates



Michelle Martinez
District 41
Republican
Chair



Sharon Washington
Salt & Light
Leader



Soo Yoo
District 67
Candidate
California
House



Rev. Charlyn
Park Dr.
KACRP
Honorary
Chairwoman



Jenny Rae
Candidate
Governor
California



Eric Ching
District 38
Candidate
US Congress



Rev.
Jacob Lee
KACRP
Chairman



설교: Rev.
Hun Y. Cho
Great Light
Methodist
Church

오는 6월7일은 공직자 예비선거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선 5월23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캘리포니아 한인공화당에서는 캘리포니아 한인공화당 후보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제1회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며 이에 뜻을 함께하는 동포여러분을 초청합니다.

June 7th is the day for our National Primary Election. It is so important you must register to vote in advance by May 23, 2022. We cordially invite you to our 1st 'California National Prayer Meeting for the Republican Candidates' on May 15, 2022, at 6:00 PM at the Fullerton 'True Love Lutheran Church' in Fullerton, California.

Date: May 15(Sunday), 2022, 6:00 PM
Location: 'True Love Lutheran Church' in Fullerton
R.S.V.P. by May 10, Tel: (323)820-8520 | Dr.박성녀목사

국가를 위한 기도회 위원: 강병태목사, 강만석목사, 조현영목사, 이우호목사, 제임스한목사, 박성녀목사, 하세화권사, 사라박사모, 레이김사모, 이은숙사모



캘리포니아 미주한인공화당

California Korean American Republican Party National Prayer Committee
www.miamikoreannews.com

후원: 마이아미재외동포신문, 코랄리치한인교회, 캘리포니아성령애국집회,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正 品
100% 정품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 및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예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성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격려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213) 272-6031 (371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편 주차)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아부 예배 오전 11:00
평야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를 세울 믿어 할게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연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 F.(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함양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323) 897-5751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213) 749-4500 / F.(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영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토)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대.청)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ia@hnsia.org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랑부 오전 8:45 투중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돋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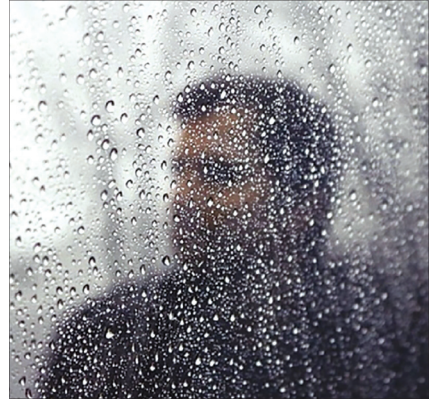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여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美 목회자 63% “스트레스로 인한 도전 직면”



©Pixabay

미국 목회자의 60% 이상이 일상의 사역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도전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성장연구소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가 4월 26일 발표한 목회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63%가 스트레스와 싸우고 있으며 48%는 낙담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28%는 외로움이나 친밀감의 부족이, 18%는 우울증이 문제라고 답했다.

18-44세 목회자의 25%가 우울증을, 37%는 외로움을, 78%는 스트레스를 언급했다. 모든 응답자의 48%는 일반적으로 산만함을, 17%는 ‘만족함의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또 젊은 목회자들이 나이 든 목회자들보다 스트레스, 낙담, 외로움, 우울증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2일까지 1,000명의 미국 개신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라이프웨이리서치 스코트 맥코넬(Scott McConnell) 전무이사는 “미국인들은 정신적 웰빙을 훨씬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고, 젊은 목회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투명한 문화에서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젊은 목회자들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높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경계, 습관 및 예방 조치를 성공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

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목회자가 되는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다. 목회자들이 지속적으로 오는 다양한 압박 속에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무시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회복력에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Lifeway Christian Resources) 벤만드렐(Ben Mandrell) 대표는 “목회자들은 정신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의 때에 주님을 의지할 것으로 분명하게 요구하지만, 또한 우리가 섬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 목회자들이 압박감의 무게가 너무 견디기 힘들 때, 정신적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美 그렉 로리 목사 전도집회서 3천명 예수 그리스도 영접



올해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아이다호주 보이즈시 소재 엑스트라 마일 아레나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서 그렉 로리 목사와 그의 아내 캐서 로리가 연설하고 있다. ©하베스트교회

미국 캘리포니아 하비스트크리스천펠로우십교회의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가 주최한 전도 집회에서 3천여 명의 참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아이다호주 보이즈시에 있는 엑스트라 마일 아레나에서 열린 ‘Social Harvest’ 전도집회에서 2만 1천 명 이상의 관중이 참석하고, 온라인에는 14만 4천 명이 이상 이실황 생중계를 시청했다.

이 대회는 원래 2020년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지난해 예년하임 엔젤스 스타디움에서 하루 동안 진행됐다. 보이즈 하베스트는 이번 집회를 위해 100개 이상의 지역 교회와 트래저 벨리 지역과 제휴하여 3년 이상 행사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그렉 로리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인한 집회 지연으로) 아이다호의 일부 주민들은 우리가 올지 전혀 확신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서약을 했고, 100개가 넘는 교회와 함께 일하면서,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위대한 헌신을 보았다. 이것이 우리가 가서 개최할 이유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개최한 30년 역사상 최고의 크루세이드(Crusade)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로리 목사는 1990년부터 매년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하비스트

크루세이드를 개최해왔다. 지금까지 약 650만 명의 사람들이 현장 집회에 참석했으며, 60만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는 집회 기간 동안 영혼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것과, 두려움과 미지의 문제에 관해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설교했다.

로리 목사는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하늘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것”이라며 “당신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생과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정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기독교에 대한 회의론자나 논쟁을 위해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도 잊지 않았다.

로리는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신다. 오늘 밤 당신은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기 위해 여기에 왔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신자들과 논쟁을 벌이고자 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17세에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으며, 삶이 어떻게 영원히 바뀌었는지에 대해 증언을 나눴다.

보이즈 전도 집회에는 유명 CCM 가수인 제레미 캠프, 크리스 톰린을 비롯해 조던 펠리스, 앤디 미네오, 하베스트 워십 밴드의 공연이 이어졌다.

김유진 기자

류응렬 목사 “한미수교 140주년… 미래 향해 함께 나아가야”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김신의 기자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류응렬 목사가 1일 목회칼럼을 통해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은 양국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세계 속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심기 위해 미래를 향해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싱턴중앙장로교회는 지난달 29일 11시 ‘한미수교140주년 한국기독교기념사업회’(한미사) 주최로 한미 각 층의 지도자들과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한미컨퍼런스’ 호스트로 섬기기도 했다. 류 목사는 1882년 5월 22일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대해 “한국 역사에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많은 아픔을 겪은 조선을 독립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 조약이라 할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선교적 측면에서 “이 조약을 발판으로 삼아 한국 땅에 자유민주주의

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역사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땅으로 들어온 복음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더욱 중요하다”면서 “선교사들의 도움과 헌신에 힘입어 일제강점기에도 한국의 기독교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고 해방 후에도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건립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다”고 강조했다.

류 목사는 한국 땅에서의 선교사들의 헌신과 관련, “1885년 4월 5일 부활 주일에 제물포 항구에 도착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미국 북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러는 본격적인 한국 선교의 문을 열었다”면서 “이후 구한말 한국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의 사연들은 가슴을 애잔하게 한다”고 밝히며 아펜젤러, 헤론, 마포삼열, 윌리엄 전킨, 루비 캔드리 등의 희생을 자세하게 언급했다.

이에 류 목사는 “한국 역사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 등 많은 면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았다”면서 “이제 한미 양국은 140주년을 넘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세계 속에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뿌리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희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그것이 오늘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대원 기자

美 버지니아서도 동성애 논쟁으로 연합감리회 탈퇴



지난 2019년 2월 14일 미주리주에서 열린 특별회의의 모습. ©미연합감리교

미국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UMC)에 소속된 버지니아 교회가 동성애(LGBT) 문제에 대한 오랜 논쟁 끝에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교인 수 300명 이상의 웨버시티 홀스톤뷰연합감리교회(Holston View UMC)는 교단을 탈퇴한 후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세계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 GMC)에 가입할 계획이다.

이 교회의 척 그리핀(Chuck Griffin) 목사는 4월 26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UMC를 떠나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명확한 길이 마련되면’ 분리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핀 목사는 “우리 교회의 최고행정위원회인 ‘교회지도자위원회’(Church Leadership Council)는 지난 3월 24일 투표에서 찬성 10, 반대 0으로 우리의 견해를 밝혔다. 한 사람은 기권하고 한 사람은 결석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교인들에게 완전히 전달할 때까지 공개 발표를 연기했다. 또 우리 교단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적 감리교회의 명맥을 분명히 이어가고 있다”며 GMC에 관해 긍정적으로 밝혔다.

또 “감리교는 전통적으로 성경을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꾸준히 누림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기 등의 구체적인 성경적 개념을 강조한다. 우리는 GMC가 잃어버렸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감리교의 일부 전

통을 회복하는 곳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홀스톤연회의 대외협력 책임자인 팀 존스(Tim Johns)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버지니아 교회의 분리 계획을 알게 되어 슬프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관계를 존중하고 교회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교회 탈퇴에 관한 공정하고 사려 깊은 절차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팀이 있다”고 설명했다.

존스 목사는 또 데브라 월리스 파젯(Debra Wallace-Padgett) 감독의 성명을 공유했다. 앞서 파젯 감독은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GMC 등 감리교의 또 다른 표식의 일부가 되기 위해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인정했다. 그녀는 “이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철수를 결정한다면 슬플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하며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GMC는 진보 성향의 ‘리베레이션 메소디스트 커넥션’(Liberation Methodist Connexion)과 더불어 최근 교단 내에서 진행 중인 동성결혼 인정과 동성애자 성직 안수 논쟁 속에서 UMC로부터의 분리를 발표했다.

GMC가 UMC 총회에서 분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UMC 지도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총회가 수 차례 연기돼 현재는 2024년으로 예정돼 있다.

GMC는 공식적으로 5월 8일 주일에 출범한다.

김유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한여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OC제물 주일 9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월 2부 예배 오전 10:30 화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수요일공부: 오후 7:30
금요성경연구회 저녁 7:4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8: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2351 W. Chagall Ave, Fullerton, CA 92833
19514 Redd St., Northridge, CA 91321, 818583-9887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저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초등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경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안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림학춘 담임목사**
아린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초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m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애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별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신용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새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필름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박훈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기독교 국가가 어쩌다... 英 6%만이 '실천적인 기독교인'

성인 총 3천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영국 성인 중 6%만이 실천적인 기독교인, 42%는 실천하지 않는 기독교인이라고 답했다. 또 비기독교인 3명 중 1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토크 지저스'(Talking Jesus)가 5개 기독교 단체의 의뢰로 영국 성인 3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70%가 영국 성인 인구의 83%를 차지하는 백인으로 나타났다.

또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25%가 전체 인구 중 12%에 불과한 소수민족이었다. 응답자 중 4%는 불가지론자, 12%는 무신론자였다.

프리미어크리스천뉴스는 이 조사 결과를 인용, "2015년 영국 비기독교인 중 68%가 활동적이거나 실천적인 기독교인을 알고 있다고 했으나, 2022년에는 그



영국 런던 전경. ©Unsplash

수치가 53%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토크 지저스'의 설문조사는 당초 5년마다 지도자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선교 전략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시됐으나,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7년 전 실시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단체인 '호프 투게더' 대표 레이첼 조르단-울프는 "이는 우리의 범위가 줄어들고 연락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녀는 "활동적인 기독교인이나 실천적인 기독교인을 모르는 비기독교인이 더 많다. 그래서 정말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전염병 때문에 많이 외출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때로 친구나 가족이라 부르는 중요한 관계"라고 했다.

이어 "이 조사는 우리가 연결된 이들을 어떻게든 줄였을지 모른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교회로서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개인으로서 우리의 우정 범위를 확장하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생명을 주는 훌륭한 우정을 맺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영국인 중 4분의 1은 예수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33%는 하나님이 아닌 신지자 또는 영적 지도자로 묘사했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영국인 가운데 6%만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으며, 45%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20%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또한 비기독교인 3명 중 1명은 기독교인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했다.

조르단-울프 대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2015년에는 그 수가 5분의 1이었다"며 "팬데믹과 불안한 세상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신앙에 더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하다. 이는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훨씬 더 중요한 순간이 되게 한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러 정부,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 러시아 사제들에 벌금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해 오던 두 명의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가 벌금형에 이어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게오르기 에델슈타인(Georgy Edelshtein) 신부와 요안 부르딘(Ioann Burdin) 신부는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과 키릴 총대주교(Patriarch Kirill)를 향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에델슈타인 신부는 지난달 30일 프랑스 언론매체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침략자, 우크라이나는 침략의 희생자"라며 "제가 남편 신부가 된 것 같아 두렵다. 나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적 없지만, 땅을 빼앗거나 공격적인 전쟁에는 항상 반대했다"고 밝혔다.

두 신부의 시위는 침략 다음날인 2월 25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서한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서한은 부르딘 신부가 사역한 카라바노보 시에



2022년 4월 30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해 온 요안 부르딘(Ioann Burdin) 러시아 정교회 신부가 AFP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AFP 통신 유튜브 캡처

위치한 그리스도부활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가 삭제 당했다.

서한은 "우크라이나 주민의 피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

의 손에 남아있을 것"이라며 "그들의 피는 전쟁을 승인하거나 침묵한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경종을 울렸다.

반면, 고위 성직자인 코스트로마의 페라폰트 대주교(Metro-

politan Ferapont)는 이 두 신부가 이 지역 성직자 160명 중 2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서한을 비난했다.

부르딘 신부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나머지 십계명과 같이 나에게 있어 절대적"이라며 "어떤 내용을 넣거나, 왜곡하거나, 제한해도 다른 해석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 6일, 부르딘 신부는 그리스도부활교회에서 러시아의 침공이 가져온 인명 피해에 대해 설교한 뒤, 행정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경찰에 체포됐다.

하르키우 인권 보호 단체에 따르면, 경찰은 부르딘이 우크라이

나에 주둔한 러시아군과 민간인 공격을 언급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3월 10일, AFP 통신은 크라스노셀스키 지방법원이 부르딘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400불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또 러시아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르딘 신부는 4월 초 사역에서 물러나, 정교회 잔류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에델슈타인 신부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사실상 교회에서 은퇴한 상태다.

김유진 기자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송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2022 - 2023 학년도

장학생 모집 공고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 5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

- 본 주소지 혹은 학교가 Southern California 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 외국 또는 타주에서 온 Southern California 내에 있는 2년제 대학 과정에 있는 학생
- Categories: i) General, (ii) PK & MK, (iii) Seminary

선발 인원 00 명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org를 통해 자세한 신청 안내 받으시고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2@joyfulccc.org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선발 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2022년 5월 1일 ~ 6월 11일
- 선발 결과 발표: 2022년 8월 1일 예정
- 장학금 수여식: 2022년 8월 21일 예정

마감일 이후에접수된 신청서나 미비된서류는 선발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예수 안에서 함께 짓는 성전

에베소서 2:13-22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구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몸이 곧 성전(聖殿)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120년 전에 알렌 선교사로 인해 복음이 들어왔고 얼마 후에 영국에서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서면호를 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자신이 짚은 성경을 배포하지도 못하고 칼에 심장이 찢려서 순교해 가는 과정에 성경책 한 권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피 묻은 성경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 민족, 조선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 해달라며 대동강 강변에 힘껏 던지고는 순교했습니다. 이 성경책을 주운 사람은 서상륜이라는 사람인데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지만 자주 관심이 가고 궁금증이 생겨 상해로 건너가 선교사를 만나 이 책에 대해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1884년 서상륜이 성경을 북집 속에 몰래 넣어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국경지역에서 검색에 발각되어 투옥되었으나, 다행히 친지의 도움으로 빠져나와 고향인 의주에 돌아와서 동생 서경조(徐景祚)와 함께 전도를 하던 중 금강령이 풀리지 않은 때라 신변상의 위협을 받아 삼촌이 살고 있는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송천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한 결과 20여명이 믿게 되고 1884년에 주민들의 힘으로 초가집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이 예배당이 한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소래(松川)교회입니다.

그 이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고 장로교와 감리교가 세워지고 1904년 세브란스에서 기부받아 세운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면서 복음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무속종교와 불교, 유교에 심취하며 지나왔습니다. 무당과 점쟁이들이 이 나라의 역사 속에 자리 잡았던 불행한 어둠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래되면서 이 모든 어둠이 진리의 빛으로 밝혀지며 도처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깨우침과 능하신 체험적 역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운동이 성령의 불길로 번져가면서부터 기도원이 생겨나고 그곳을 통해 많은 심령들이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체험하면서 영적 생명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1956년부터 시작된 기도원 운동과 성령운동이 세계교회사를 통해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기하급수적인 부흥의 전성기를 70년대에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과 일제의 압제 속에서 가난을 물려받았던 우리나라는 80년대에 오면서 경제부흥의 기쁨이 마련되었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성장을 가져온 나

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처럼 얻은 경제부흥이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계획은 한국교회를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서 세계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이만 여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에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연적입니다. 한국경제는 하나님이 불드시고 가꾸어 주시는데 과거 IMF라는 치욕적인 빚쟁이 국가로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교회가 바로세워야 하고 선교에 합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가 잘못되더라도 정치를 바로세워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두고 세우신 세계선교 주역이라는 시대적 사명은 계속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세계에서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그들 중에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11절 이하에서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중략)...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회개해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만 가도 성벽 바깥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에는 이방인이 넘으면 즉사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똑같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15-16절의 말씀은 머리를 예수로 하는 한 몸을 이루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 얻은 성도라면 똑같은 자격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16-17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중략)...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큰 성전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영적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 조직 속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끼워지지 않는 것이 자기도 심판을 보류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부흥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중략)...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2:20-22)”했습니다. 이처럼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다시 지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확실히 성령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온전한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상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의 최우수대학(M.A.) 신학박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ia, CA 90247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신학교학(M.A. ICS), 목회학(M.Div), 신학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8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Global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ia.edu

강준민 칼럼

어머님의 소중한 가르침

우리가 잊지 못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문득 문득 떠오르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제 생애에 가장 영향을 끼친 분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통해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어머니를 통해 일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샅바느질을 해서 저희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장인(匠人) 정신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샅바느질을 하면서 사셨지만 어머니의 바느질 솜씨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바느질 솜씨가 탁월해서 많은 분들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옷을 맡기셨습니다. 어머니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정해진 약속 시간에 옷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할 때면 밤을 새곤 하셨습니다. 잠을 쫓기 위해 커피를 마시며 일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탁월함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가치 중의 하나가 탁월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맡겼을 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섬겼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시 78:72, 개역한글). 저는 어머니와 다윗을 닮고 싶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목양의 일을 할 때 마음의 성실함과 공교한 손길로 섬기고 싶습니다. 공교한 손길은 공교한 솜씨이며,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어머니를 통해 정직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제게 바느질하는데 필요한 실타를, 밖에서 놀고 있는 형에게 부탁해서 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에게 부탁해서 실타를 사 왔습니다. 문제는 칭찬 듣고 싶은 마음에 형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가 직접 사 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형에게 그 사실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 저는 정말 크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 날 이후로도 어머니는 자주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것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비겁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정직의 중요성을 수없이 가르쳐 줍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나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잠 11:3).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잠 14:11하).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시 84:11).

셋째, 어머니를 통해 겸손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어릴적부터 저를 신뢰해 주

셨습니다. 제가 인복(人福)이 있어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잘 될 때 교만한 질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나이 40쯤 되었을 때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눈에, 제 안에 교만의 싸이 움트는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를 불러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한 시간 동안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가진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 제가 교만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잠 18:12).

넷째, 어머니를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드린 날부터 평생 새벽 제단을 쌓으셨습니다. 미국에 오셔서 저의 집에 사시는 동안 하루에 세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단 6:10). 어머니는 하루에 세 번씩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 놓으신 채 기도를 드리셨

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저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늘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누군가로부터 중보기도 부탁을 받으면 끈질기게 중보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다섯째, 어머니를 통해 헌신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가족들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일에도 헌신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을 위해서는 일년 동안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헌신이 얼마나 우리 삶을 풍성케 하며, 아름답게 하는 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신은 씨앗과 같아 반드시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의 목회자로 성장한 것은 어머니의 소중한 가르침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부디 더욱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길 바랍니다.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축선교
박상원 목사

이때는 한편으로 남한에서 힘차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따라 북조선 지하 교회가 우후

죽순 생겨나던 부흥의 계절이 기도 했다. 당시 타국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 성경이 소개되고 크고 작은 기도회가 조직되어 활발하게 전도 활동을 벌인 것이다.

이때 우리 기도회에 소속된 성도 중에 눈 깜짝할 사이에 팬티 속에 감춰 둔 돈까지 훔치는 전문 털이범이 있었다.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우리는 그를 '반짝이'라고 불렀다. 그는 타고난 소매치기인지 잠시도 반짝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마비된다고 엄살을 떨곤 했다. 그날도 반짝이는 장마당을 돌

며 소매치기 할 상대를 노리다가 같은 소매치기를 만났다.

“동무는 혁명적 대고조 시기에 천리마를 타지 않고 당나귀를 타고 장마당을 누벼셔야 되겠소?”

반짝이가 같은 소매치기에게 이렇게 농담을 하니깐 혀가 짧은 소매치기는 “동무는 왜 팡나귀를 탔스까?”라고 대꾸했다. 그런데 이 말이 향간에 유행이 돼서 “동무는 왜 당나귀를 탔스까?”는 놀고먹는 건달들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하지만 북한 경제가 이후로 더 어려워져서 직장에 출근해도 할 일이 없어서 한 달에 며칠 일하지

못했고, 그렇다 보니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 돌도 없는 팔불출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 보니 놀고먹는 건달이 부지기수가 되었고, ‘동무는 왜 당나귀를 탔스까’도 뜻이 변하여 ‘선군 정치로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고 호령하는 노동당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로 통하게 되었다.

반짝이는 헛바다 밑에 면도날을 물고 다니다가 소매치기 할 대상을 만나면 지체 없이 반짝해서 얼마 후면 손에 어김없이 일용할 양식(?)이 들려 있곤 했다. 더구나 반짝이는 척 보기만 해도 ‘저 자는 경제력이 대단하

다’, ‘이 자는 부유층에 속한 놈이다’를 판단해서 도적질할 상대를 구별할 수 있었다. 홍콩의 소매치기가 유명하다지만 반짝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반짝이를 대동하고 다녔는데, 반짝이와 함께 다니면 주머니가 텅 빈 날에도 전혀 걱정되지 않았다. 반짝 하는 순간 일정한 훈 없던 주머니가 그득하게 채워지기 때문이다. 한편 ‘폭풍이’라는 사람은 공격 대상이 일단 정해지면 귀신같이 접근해서 화산처럼 폭발하여 반드시 초토화시키는 사람이었다. (계속)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CDTV 미주기독교일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
남녀맞춤/명품웃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SWM 선교회 채용공고

애나하임에 위치한 SWM 선교회에서 함께 할 Full time 사무직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재정 / 행정 담당
- 근무지 : Anaheim, CA
- 근무시간 : 월-금 (9am~6pm)
- 지원자격
 - 미국 내 합법적 취업이 가능한 분으로 세금신고 가능한 분
 - MS Office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 활용 가능자
 - 한국어와 영어로 이메일과 SNS 소통 가능한 분, 킥북 사용자 우대
- 제출서류 : 이력서, 신앙 간증, 추천서
- 지원마감 : 2022년 5월 10일
- 문의 및 접수 : general@swmnet.org (website : silkwavemission.com)

SWM 선교회

담임 목사 청빙

한빛 장로 교회는 California El Monte에 소재한 미국 장로교(PCUSA)에 소속된 47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정년 퇴임하시어 제3대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자격
 - 1) 학력 : 정규 신학대학원 (M.Div.이상) 졸업하신 분
 - 2) 경력 : 담임 목사 또는 부목사 5년 이상 시무하신 분
 - 3) 소속 : PCUSA소속이시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 4) 언어 : 이중언어 (한국어, 영어 소통이 가능한 분)
 - 5) 신분 :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가능한 분
- 제출서류
 - 1) 이력서 (PCUSA Form PIF, 교단E-mail을 통해서, 또는 자필이력서)
 - 2) 목사 안수 증명서 사본,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사본 각1통
 - 3) 추천서 2통 (목사, 장로 추천서 각1통,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 4) 최근 (6개월) 설교 2회분 (동영상 file 또는 link)
 - 5) 신앙 고백서 1부
 - 6) 목회 계획서 1부
 - 7) 본인 및 가족 소개서 (가족 사진 첨부)
- 제출 마감일시: 2022년 5월 15일
- 제출처

우편 : Divine Light Presbyterian Church(PNC)
11608 Valley BL, El Monte, CA 91732
E-mail: dlpcpcusa@gmail.com
- 기타
 - 1) 제출 서류는 보안에 유의하며 청빙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3) 문의는 E-mail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빛 장로 교회 청빙/위/원/회

낮설고 특별한 안식

일반적으로 목회를 말한다 면 매일 긴장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저런 원고를 쓰고, 교인들의 삶에서 영적인 틈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고, 총회와 지역사회 일들을 감당하고, 전화와 이메일 등 수많은 연락에 대해 필요한 답을 하고, 교회의 중요한 선교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등 피곤을 느낄 틈도 없이 바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늘나라 열매가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이지만 가끔씩은 마음과 육체에 위기가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저명한 한 목사님은 바쁜 일정을 쫓아가다가 두 번이나 우울증이 와서 크게 고생을 했는데, 심지어 서재에 있는 책들을 다 불사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아

주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던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국가기도의 날 행사에서는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서 잘하던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목사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어느 날 무기력을 호소하고 심지어 죽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금식이나 철야기도를 명령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잘 먹고 마시게 하시고 자고 쉬게 하셔서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들과 저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성대의 문제를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때 분명히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하나님은 저의 약해진 성대를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상은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일들을 준비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임을 깨닫

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제 미련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고 신속하게 목회 협력위원회와 장로님들과 각 기관장님들과 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안식년이라는 낯선 일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성도님들의 진실한 사랑과 교회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타협안으로 한국에서의 세계선교대회 기간을 제외하고 한 달 정도의 안식월을 갖기로 결정하고 이번 주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주일 예배와 이미 약속된 외부예배들은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치료를 약속해 주셨고, 이 사인을 통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에 출타로 자리를 비우게 되는 한 주일만 빼고 주

일 예배와 5월 기도원성령대망회 설교까지는 다 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정직한 마음으로는 안식하는 것이 아주 낯선 일처럼 다가옵니다. 평생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익숙한 저에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분명 스트레스처럼 느껴질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안식을 만나게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창1:28)는 축복의 말씀도 안식을 이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낮설고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새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동두천과 지리산의 두레마을

4월 29일(금)부터 5월 2일(월)까지 동두천과 지리산의 두레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토요일 장모님 장례식까지 치르면서 여러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건의 아귀를 맞추시고 시간의 퍼즐을 정교하게 조정하셔서 시간을 절약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원을 다녀와서 건강검진을 받고 목요일 휴식과 준비를 마치고는 금요일 아침 일찍 동두천 두레 마을을 찾았습니다. 최근훈 장로님을 만나 우리 셋은 한반도의 거의 북단 동두천의 두레마을을 찾았습니다. 김진홍 목사님께서 바쁜 중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차 마실 시간도 없이 목사님은 랜초

라마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을 주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이 되도록 계획이나 규모나 재정을 잘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지난 10년 동두천 두레마을의 개척이 평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레마을은 동두천 산속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을에 새로 지은 10세대 마을 주택 중의 하나에 사셨고, 또 마을 주민들이 사는 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금식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새벽기도와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시간을 맞추시려고 성경을 들고 나와서 우리를 농장으로, 공장으로, 목공소 그리고 학교로 이끄셨습니다. 곳곳을 돌아보시며 상황을 파악하시고 사역자들에게 격려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와 지점을 주셨습니다. 국제학교 학생들이 수업 중이었습니다. 체육 교사는 거구의

농구선수 출신인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좋은 시설과 건강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미래의 꿈나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용기, 근면, 창의성으로 학생들을 격려하여 이끄는 학교는 학생들을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고 인도하여 보낸다고 합니다.

토요일 대구에서 경남 함양으로 이동하며 지리산 두레마을을 찾았습니다. 약 2시간을 걸려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공동체 사역을 이끄시는 김호열 목사님과 자정을 넘기면서 밤이 늦도록 차를 마시면서 공동체 사역의 중요한 골격을 들으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일에는 주변 마을 사람과 함께 공동체의 식구들, 그

리고 우리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형상화시킨 목상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영적 지도자가 핵심에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 후에는 대구에서 온 두레연구원 황보영조 교수 부부와 김구한 교수 부부와 만나 귀한 교제를 가졌습니다.

랜초 라마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여행 중에 공동체의 중요한 목표를 생각하여 봅니다. 심원한 영성의 깊이를 가짐이 신앙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아울러 같이 살아가면서 자립을 위한 사역과 노동을 감당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과 교회,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훈련의 제공입니다. 랜초 라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Amount	\$300,000		\$500,000		\$1,000,000		Amount	\$100,000		\$300,000		\$500,000	
Ag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Ag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24	\$30	\$36	\$46	\$67	\$86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43	\$60	\$68	\$97	\$131	\$188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보험자 Rate 및 보험료사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현재금 조세,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지하숙소복원과 복벽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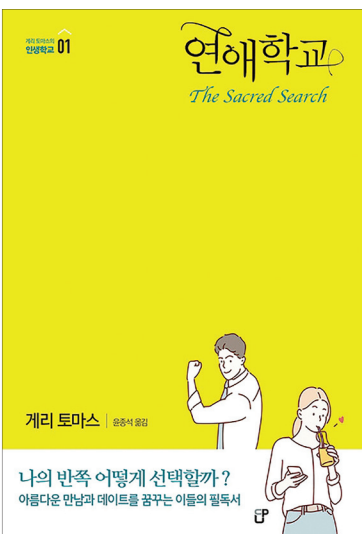
그래서 그들은 술한 압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_박상원 목사(편저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람+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복벽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기드온 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 www.gideonbrothers.org
 돕는 방법: Pay to: G.B.M.W(체크오더명)로 기입해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연말세금공제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게리 토마스의 인생학교 <연애학교>

연애와 결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집중하라



도서출판CUP가 게리 토마스 작가의 신간 <연애학교>를 출간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결혼하기 전 배우자를 선택할 때부터 제대로 만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기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 이 책을 썼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일단 결혼하고 나면 좋은 나쁜든 그 관계가 모든 아침과 모든 밤과 모든 주말과 모든 휴일을 지배한다. 배우자는 당신이 밤마다 자리에 눕기 전 맨 마지막으로 볼 사람이다. 아침에 깨어 맨 먼저 볼 얼굴도 그 얼굴이다. 배우자의 말은 당신을 격려해 줄 수도 있고 낙심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했다.

그는 "배우자의 유머는 당신을 재미있게 웃길 수도 있고 수치심으로 울릴 수도 있다. 배우자의 몸은 당신을 즐겁게 해줄 수도 있고 위협할 수도 있다. 배우자의 손은 당신을 붙들어 줄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다. 배우자의 존재는 치유의 묘약이 될 수도 있고 온갖 후회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실망하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50~60년 동안 당신을 계속 매혹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 위 그 어디에도 없다. 상대가 정말 재미있고 매력이 넘치고 당신이 정말 흠뻑 빠져 있다면 그 매

혹이 몇 년쯤은 갈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지라 결국 서로에게 실증을 내게 되어 있다. 아무리 부유하거나 잘생겼거나 유명한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며 "한때 안정과 활력을 주던 바로 그 관계가 속박과 죽음으로 느껴진다. 당신도 비전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결국 똑같은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아무리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다 해도 소용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여자들은 군림형의 남자에게 로맨틱한 사랑을 느낄 소지가 크다. 하지만 여자들이 평생의 배필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동반자의 식, 관계의 기술, 깊은 애정 등을 표현하는 능력이다. 그런데 군림형의 남자들은 대개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여, 당신의 기분만 따라간다면 당신이 사랑에 빠질 대상은 12~18개월 동안 남자친구로서는 당신을 설레게 할지 몰라도 50~60년 동안 남편으로서는 당신을 좌절에 빠뜨릴 소지가 크다"라고 했다.

저자는 이어 "반면 남자들은 신체적 매력을 주는 여자에게 로맨틱한 사랑을 느끼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사람의 삶에서 가장 확실하게 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외모다. 결혼이란 함께 젊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변하게 되어 있다. 그 점을

나의 반쪽 어떻게 선택할까? 아름다운 만남과 데이트를 꿈꾸는 이들의 필독서



복음주의 영성사역자이자 가정 사역자인 게리 토마스의 연애와 결혼의 비결

염두에 두지 않고 결혼한다면 당신은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상대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렵다. 상대가 내 참모습을 알면 혹시 달아나지 않을까? 딱히 내보일 만한 것이 내게 있거나 한가? 내 참모습에 실증을 낼까? 두려움을 느낄까? 반감이 들까? 그래서 우리는 숨는다. 상대를 알아가려 하기보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 한다. 상대에게 의식적으로 나를 제대로 알리기보다 그냥 상대의 호감을 사려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을 참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할 사람을 찾고 싶은가? 거기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대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데이트할 때 하나님과 나와 그대의 '삼인조 대화'를 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신을 계시해 주신다. 절대로 대화의 소재가 떨어지지 않는다. 둘은 날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동적인 사람이 된다. 우리의 열정에도 수시로 다시 불이 붙는다"라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뇌의 생리를 보면 연애 감정은 모래시계와 같다. 이 모래시계가 지속하는 시간은 평균 12~18개월이다. 모래가 내려오는 시간이 2년 정도로 약간 길어질 수 있지만, 결코 아주 길지는 않고 강도도 똑같지 않다. 연애 감정의 평균 수명은 대개 2년 미만이다. 물론 정신적 고통이나 친밀한 소통의 시기에는 로맨틱한 감정이 되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점차 감정은 '뜨거운 흥분'에서 '따뜻한 의지'로 바뀐다. 이 책이 평생을 함께할 따스한 관계를 지속하는 소중한 만남을 위한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게리 토마스 저 | 윤종석 역
도서출판CUP | 312쪽

나의 반쪽 어떻게 선택할까? 아름다운 만남과 데이트를 꿈꾸는 이들의 필독서

헛된 연애론은 버려라. 운명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듯 '운명적인 반쪽'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신간] 지구생각

<지구생각>은 예방의학·산업보건 전문의로서 국제 구호 및 의료보건사업을 수행해 온 저자 이명근 전 미국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UN이나 국제기구, 국제 NGO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쓴 에세이 모음집이다.

한인 선교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또는 이슬람권 국가에서 어렵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국가들에서는 직접적인 선교 활동이나

목회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사업이나 구호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이러한 선교사들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UNDP(유엔개발계획), UN-HCR(유엔난민기구) 등의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난민·재난 구호활동, 병원 운영 및 컨설팅, 경제 발전 국제 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다.

미얀마, 베트남, 북한, 몽골, 캄보디아,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르완다, 에스와티니, 아이티, 쿠바, 필리핀, 라오스, 네팔, 세네갈 등 세계 여러 빈곤국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느

끼고 깨달은 바를 엮었다.

저자는 이 책을 특히 미래의 주역인 많은 젊은이들이 접하고 도전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활동하는 계기를 삼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이명근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이후 30여 년을 국제 협력분야에서 일했다. 1997년부터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연구원과 교수로 재직하며 10여 년간 전 세계서 난민 및 재난 관련 일을 했다.

2010년 귀국 후 모교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30여 개국

에서 보건사업, 병원운영 및 컨설팅 등 보건분야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했다. 국제구호기관 Mercy Corps 중국, 한반도 대표를 지내고, 현재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 중앙안전보건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책에는 '북한, 이데올로기만큼 다른 의사의 사명', '찬차마요 커피 속 한국의 보건 의료 시스템', '의료봉사에 나서기 전 꼭 챙겨야 하는 것들', 'NGO 활동의 국제적 표준을 이해한다는 것', '국제보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속성', '눈을 들어보라, 더 많은 길이 보일 것이다', '자체 역량을 강화하



는 것이 진정한 구호다', '세네갈의 나비효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송경호 기자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애플 TV+ <파친코> (下)

<파친코>, 부당한 차별에 저항하는 기독교 신앙 보여줘

기독교 선교사들과 한국 초대교회 목회자들, 조선 시대 온갖 차별과 악습 개선 노력 나서 침략하고 핍박한 일본인들까지 선교 지속해 차별없이 구원과 은혜의 진리 전할 소명 감당

◆기독교와 차별의 극복: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에 대한 차별의 현실

애플TV+ 오리지널 드라마 <파친코>의 핵심 주제는 '부당한 차별에 대한 저항'이다. 그런데 <파친코>의 서사 안에서 '부당한 차별'이란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게 강요하는 차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선자의 가족, 특히 선자 어머니 양진(정인지 분)과 선자에 대한 여성차별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영국계 은행에서 동양인 직원으로 일하는 솔로몬(진하 분)이 당하는 인종차별 역시 비중 있게 묘사되고 있다.

즉 <파친코>의 차별은 단순히 식민지 조선과 해방 이후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 의해 받는 차별에만 일차원적으로 집중하는 민족주의적 시각을 넘어, 20세기를 살아가는 한 한국인 가족, 특히 서로를 끔찍히 아끼는 모녀에게 가해지는 다차원적인 차별의 매트릭스를 복합적으로 묘사하려 노력한 작품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원작 소설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가 어린 시절 이민을 간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20세기 한국 역사를 바라볼 때, 한국과 미국 양측 시각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입장에서 서기 때문일 것이다.

<파친코>는 작가의 이런 복합적인 시각 덕분에 한국 특유의 자국 우선주의에 경도되지 않은 채, 한국 민중이 감내해 온 차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파친코>의 서사 안에 다중적으로 얹혀 있는 차별의 굴레에 저항하는 요소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애절한 모정(母情)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 신앙이다.

선자의 어머니 양진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신분 낮은 여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온몸으로 감내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산 경험이 있고, 그 딸 선자(김민

하 분)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유부남 한수의 이기심 때문에 극단적으로 보수적 사회환경 속에서 미혼모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다.

이 때 양진과 선자를 동시에 구해주는 이는 개신교 전도사 이삭(노상현 분)으로, 이삭은 두 모녀가 자신을 구해준 데 대해 편견 없는 감사함을 가지고 결국 선자와의 결혼을 통해 어려운 처지를 함께 헤쳐나가는 동반자가 되어준다.

선자와 함께 오사카로 건너온 이삭은 양진과 선자에 대해서만 아니라 그곳에서 극심한 차별과 노동착취로 고통받는 한국인들에게 전도하며 힘이 되어주려 한다.

이처럼 이삭은 패망해 버린 나라의 운명 때문에 각양 차별의 굴레에 짓눌려 있는 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기독교적 박애의 표상으로 그려진다.

실제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시절, 기독교 선교사들과 국내의 교역자들은 일본에 의한 강압과 차별 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온갖 차별의 악습으로부터 한국의 민중을 구해내는 데 많은 힘을 쏟았다. 그리고 압제자인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선교 노력을 지속했다.

민백성에게 차별없이 구원과 은혜의 길을 여는 진리를 전하는 소명은 기독교 고유의 특수성이다. <파친코>는 이런 특수성을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와 선민의식 철폐: 일본 특유의 폭력적 선민의식에 저항한 기독교 신앙

세상 모든 국가와 민족은 자국 우선주의 혹은 자민족 우선주의를 내세운다. 제국주의적 황포를 저질러 온 강대국과 식민지로서 압제받던 약소국, 어느 편이든 상관없이 부족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나라가 없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가 차별과 멸시의 삶을 감내해야 했던 한 기독교 교역자 가정의 일대기를 담은 드라마 <파친코>.

그리고 이 자민족 중심주의는 이방인,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일본인들 또한 고대로부터 강력한 자민족 중심주의를 조장하고 강화해 왔다. 신도의 최고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御神)의 직계 후손인 일왕가 야마토 가문의 지배를 받는 신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일본 고유의 선민의식을 형성하는 역사적 배경을 이룬다.

이 일본 특유의 종교적 민족주의 정신은 보신전쟁(1868-1869)과 메이지 유신(1868)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강한 군국주의 색채를 띠게 되고, 동아시아 전역을 일본의 식민지로 삼으려는 정치 이데올로기인 대동아공영권 상상으로 발전된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 근대화 당시 일본인들은 영국과 독일 등 당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선진 문물에 대한 강한 동경심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국격이 제국주의 열강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자부심과 함께,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공유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인들을 제외한 아시아 각국의 민족을 멸시하는 풍토가 일본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되었다.

드라마 <파친코>에 묘사된 한국인들에 대한 차별과 착취는 바로 이런 일본 특유의 종교적·

정치적 선민의식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선민의식에 깊게 물든 일본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소극적으로든 아니면 적극적으로든 배척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진정성 있는 기독교 선교사와 교역자들은 민족 간 차별의 울타리를 분쇄하는 무차별적인 박애와 선교의 열정으로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다. 이런 헌신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며, 그 아래 전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할 가련한 영혼들로서 기본적으로 평등하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 신도의 인간 이해는 일본인들의 민족신 아마테라스 아래 일왕가가 있고, 그 밑에 일본인들이 있으며, 그 아래 전 세계의 다른 민족들이 있다. 한 마디로 인간 대 인간, 민족 대 민족 간에 확고한 계급적 격차가 있고, 그래서 하위계급에 대한 상위계급의 폭력과 압제가 자연스럽게 정당화된다.

이런 선민의식을 위협하는 모든 사상과 신앙에 대해 적개심을 갖도록 만든다. 한국의 기독교계가 신사참배 강요라는 폭력과 굴욕으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당하게 된 것도 바로 신도가 가진 이런 우월성에 대한 근거 없는 확신 때문이다.

한국 또한 전통적으로 나름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다. 바로 소중화(小中華) 의식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 선민의식의 기동 역할을 하던 중국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패망의 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그 여파로 조선 역시 패망의 길을 걸으면서 소중화의식에 환멸을 느낄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 특유의 선민의식이 무너진 틈에 참된 인류 평등과 차별 철폐의 정신을 실천하던 기독교 신앙에 큰 감화를 받게 된다.

드라마 <파친코>의 서사는 바로 이런 기독교적 차별 철폐의 신앙과 정신을 기반으로 한국인들을 바라본다.

해방 이전에는 일본 제국의 노예로서,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일본 사회의 이방인이자 약자로 전락해 버린 한국인들과 재일교포들에 대한 동정과 박애가 드라마를 이끌어 가는 서사의 바탕에 자리잡고 있다.

덕분에 <파친코>라는 작품은 식민지 치하의 약자들,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의 다중적 측면을 예리하게 파헤친다. 또한 모든 민족을 짓누르는 부당한 차별의 현실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 기독교 신앙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박사/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당신의 올스타에게 자신감을 높여주세요.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가 5세 이상이라면 COVID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은 중증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은 여러분과 자녀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 큰 자신감을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의사에게 문의하세요.

[vaccines.gov](https://www.vaccines.gov)에서 가까운 백신 접종소를 찾으세요.

함께
이겨냅시다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